

 <b>미래소비자행동</b> <small>Consumer Action for Future</small>  <b>www.can.or.kr</b>	<b>성 명 서</b>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4년 8월 30일(금)
	담당부서	미래소비자행동 환자권리본부 ☎ 02-706-1372 관련문의 정윤선 사무총장 (010-6205-9263)

## 간호법 제정 환영 !

### 지역사회 간호와 돌봄 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국회에서 이익집단의 반발에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소비자를 보고 간호법을 제정한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 변화하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요구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간호법 제정을 통한 발판마련에 의미있어!

우리나라 간호에 관한 법규는 1914년 단독법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일제강점기에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의료인들을 강제징용하기 위해 당시 모든 의료관련법안(의사규칙, 의생규칙, 치과의사규칙, 간호사규칙)을 통합하면서 1944년 ‘조선의료령’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1951년에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져 오늘의 의료법 뿌리가 됐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이후 1948년 의료법과 함께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을 별도로 복원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전체 5대 의료인의 절반을 차지하던 1951년 시절에 만들어져 의사법으로 간주될 정도다. 당시 간호사 숫자는 고작 1,700명으로 의사(5,082명)의 절반도 안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46만명)가 의사(13만명)의 3.5배이다. 이 때문에 현행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어야 했는데 정치적 계산에 의해 거부되면서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되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 ‘의료법과는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

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간호법을 운영하여 왔다. 아쉽게도 이번 간호법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하는 돌봄 수요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관리로의 변화에 대처하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하였으나 간호법의 독립법 제정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 **진료지원(PA)업무는 간호영역의 극히 일부, 이미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없이 의료기관 현실에 따라 수행해 왔던 업무를 공식화, 법제화 한 것으로 전공의의 수련과정과 관계없으며 대체인력이 될수도 없어!**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 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진료지원(PA) 업무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과 절차 규정도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PA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간호사의 PA 업무범위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으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이번 간호법에선 제외됐다.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는 그동안 법적 보호장치도 없이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간호사들이 환자를 위해 수행해 왔던 업무로 이번 간호법을 통해 공식화, 법제화됨으로써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행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것에 의미가 크다.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수련과정에서의 행위는 단순히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숙련 과정의 의미가 큰 것으로 정규직 간호사의 업무와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련과정을 동일시 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료의 기본적인 특성을 모르고 하는 주장일 뿐이다. 향후 시행령 등의 논의에서도 시스템으로서의 의료와 의료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대한 댐에 아랫돌을 빼서 급한 윗돌을 막아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지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화 해 나가기를 바란다.

■ **간호법 제정은 시작일 뿐, 새로운 의료, 간호,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져야 !**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한 직능을 규율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가 담지 못하지만 시대

가 필요로 하고 국민이 원하는 돌봄과 간호, 건강수준 향상의 새 틀을 짜는 시작점 이라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 정한 노동시간과 복지를 확보하며, 간호 인력의 양성과 수급을 안정화하고, 간호사 의 윤리와 품질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호영역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장기적으로는 의료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며 간호와 돌봄을 선진화 하는데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

